

# “일자리 탕” 전남 20대 순유출 비율 ‘전국 최고’

통계청, 2020년 국내 인구가동통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1만6000명 순유출되며 13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지역민 5명 중 2명은 직업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났다. 광주 전입 사유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전남은 ‘자연환경’을 이유로 든 순유입한 인구가 많았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가동통계’ 결과에 담겼다.

지난 한 해 지역 순유출(전입-전출) 인구는 광주 6083명·전남 9754명 등 총 1만583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순유출 인구는 지난 2007년(2만716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 순유출 인구 1만2663명(광주 3875명·전남 8788명)에 비해서는 25.1%(3174명)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1만3673명(광주 2679명·전남 1만994명)에 달하는 20대가 순유출됐다.

20대 순유출 인구는 전년에 비해 광주는 91명,

1만994명으로 전년비 2472명 늘어...광주 2679명

광주·전남 전체 순유출 1만6000명 ‘13년 만에 최고’

전남은 2472명 증가했다. 전남 20대 순유출 인구가 1만명을 넘은 건 지난 2007년(1만1386명) 이후 13년 만이다.

전남지역 20대 순유출 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20대 순유출률은 -5.4%로, 경북과 함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경남(-4.3%), 전북(-4.2%), 울산(-3.7%), 강원(-2.7%), 충남(-1.9%), 대구(-1.6%), 충북·제주(각 -1.4%), 광주(-1.3%), 부산(-0.9%), 인천(-0.6%), 대전(-0.3%) 순으로 순유출 비율이 높았다. 20대 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세종(5.3%), 서울(3.1%), 경기(2.2%) 등 3곳이었다.

광주·전남을 떠난 사유를 살펴보니 두 지역 모두 ‘직업’을 첫째로 꼽았다.

광주 전출자 7만3279명 가운데 38.5%에 달하는 2만8353명은 ‘직업’을 전출 사유로 들었다. 전남 지역 비율도 37.0%(9만7557명 중 3만6097명)를 차지했다.

광주 전출 사유는 직업→가족(25.2%)→주택(16.8%)→교육(8.3%)→자연환경(2.6%)→주거환경(2.4%)→기타(6.2%) 순으로 많았다. 전남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입사유별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인구를 살펴보니 광주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순유입된 인구가 3232명에 달했다. 전남에서 순유입을 기록한 이동 사유는 자연환경(3010명)과 주택(333명) 등 2가지였다.

전국 사군·구별 순이동률 상위 10위를 보니 무

안군이 지난해 5000명 순유입되면서 순이동률 5위(6.4%)에 들었다. 광주시 동구 순이동률은 4.6%(5000명 유입)으로 10위에 올랐다.

반면 광양시 인구는 5000명 순유출되면서 전국 4번째로 순이동률(-3.4%)이 낮았다.

한편 지난해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77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9%(63만1000명) 증가했다. 인구 이동자 수로 보면 2015년 77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수도권으로는 8만8000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 양상이다.

순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도는 경기 지역으로, 16만8000명이나 순유입됐다. 다만 경기도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여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가 만나는 공간이다. 세종 역시 주변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순유입 1만3000명) 공간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0.31 (-68.68)
↓ 코스닥	994.00 (-5.30)
↑ 금리(국고채 3년)	1.007(+0.001)
↑ 환율(USD)	1106.5(+5.80)

## ‘농협중앙회 클린뱅크’ 전남 65곳 ‘전국 최다’



정일기 조합장 광주원협 김영중 조합장 안양농협

지난해 자산 건전성이 높은 ‘농협중앙회 클린뱅크’가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0년 클린뱅크 인증 사무소에 전남 65개 농·축협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클린뱅크 인증 평가는 매년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체비율, 고정이자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손실흡수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금·은·동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연속 금등급을 달성하면 ‘그랑프리’ 달성탑의 영예를 얻는다.

전남에서는 전국 12개 그랑프리 농·축협 가운데 광주원협농협과 안양농협이 각각 6년 연속, 3년 연속 뽑혔다.

전남 수상 농·축협은 총 65곳으로, 나주 영산포농협 외 32곳이 ‘금등급’을 받았고 ▲여수 울촌농협 외 14곳 ‘은등급’ ▲장성 황룡농협 외 14곳 ‘동등급’이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대상

### 수급자 전체로 확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오른 셈이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양동시장 대표 상품

### ‘유튜브’로 만나요

#### 30~31일 생방송 판매

광주 양동시장 상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31일 ‘유튜브’에서 생방송 판매를 펼친다.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양동 전통시장 설맞이 특가라이브 방송’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생방송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첫날 행사는 광주 출신 코미디언 김용명씨가 진행하며 양동시장 대표 상품인 홍어, 건어물, 생선, 육류, 과일 등에 대한 상품정보를 전달한다.

최근 전통시장들은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 기회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부안전통시장의 ‘참방간장새우’와 고창전통시장의 ‘바지락라면’이 방송 시작 4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우로 명절 선물하세요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맨 왼쪽) 임직원들이 26일 남구 월산동 하나마트에서 광주 한우 브랜드 ‘무등골그린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축협은 올해 설 명절 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몰(nhhanwoo.com) 등에서 최대 30% 할인행사를 펼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설 2주 앞으로...장바구니 물가 ‘들썩’

### 농축수산물 22개 품목중 11개 올라...꽃고추 2주 전보다 37.5% ↑

설 명절을 2주 가량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 22개 가운데 11개 품목이 2주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얼마오 2102호’를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잦은 한파와 폭설로 생육이 약화된 상추와 꽃고추 가격이 2주 전(1월11일)보다 각각 11.1%, 37.5% 올랐다.

청상추 100g 가격은 1000원으로 2주 전보다 100원 상승했고, 꽃고추 100g은 800원에서 1100

원으로 올랐다. 애호박 1개는 2주 전보다 29.4%(500원) 오른 2200원에 팔렸다. 양파 1kg은 3500원으로, 2주 전보다 29.6%(800원)이나 올랐다. 대파(1kg)도 3700원으로 5.7%(200원) 올랐고, 파프리카(200g)는 25.0%(400원) 오른 2000원에 팔렸다.

무 1개는 10%(200원) 오른 2200원에, 오이 10개는 1만원으로 11.1%(1000원) 상승했다. 최근 작황부진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든 배(10개) 가격은 2주 전보다 11.1%(500원) 오른

5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제철을 맞은 딸기 100g 가격은 1700원으로, 5.6%(100원) 내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달걀 1판(특란 30개) 값은 2주 전보다 19.4%(1070원) 오른 5500원에 판매됐다.

aT 측은 “이후 후반 영하권의 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생육부진 등으로 채소류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박, 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설 성수기 수요 증가로 단기간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